

신뢰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

지난 26일 제11대 전북도의회 하반기 의장에 송지용(원주1·더불어민주당) 의원, 제1부의장은 최영일(순창·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부의장은 황영석(김제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이로써 제11대 전북도의회 하반기 의장단 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본보는 도의회 하반기 의장단의 포부를 들어봤다.

송지용 의장 “일하는 의회상 구현”



제11대 하반기 전북도의회가 ‘신뢰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을 의정 목표로 제시하며 공식 출범했다.

송지용 의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과 같은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시대변화를 빠르게 읽고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에 빠진 도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전북도의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견하고 준비하기 위해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새롭게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도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 것”이라며 “의원들의 역량을 적재적소에 발휘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지용 의장과의 일문일답.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제11대 도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도민과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직책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겁고 엄중한 만큼 그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신뢰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을 만드는 데 의장직무를 잘 수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맡이 아닌 행동으로 충실히 일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에 빠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제시하셨는데요?

도민께서 도의회에 부여해 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입니다.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도정의 재산관리자입니다. 이에

의원들께서 도정은 물론 교육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전북의 번영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권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혁신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 그리고 예산은 꼼꼼히 분석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북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후반기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정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들의 탁월한 능력을 적재적소에 모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을 지탱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위기 극복과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 금융도시 지정과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국립감염병연구센터 유치, 한국단 소산업진흥원 설립, 혁신도시 시군2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부창대교 건설 등 전북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 및 법률제정도 시급합니다. 집행부는 물론 국회 등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전북 현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향점을 맞은 민선 7기 도정 주요 공약과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의제가 발생 할 때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물론 전체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전북의 경제, 도민들의 삶의 개선되고 발전되도록 해법을 모



사진 왼쪽부터 최영일 부의장, 송지용 의장, 황영석 부의장.

색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첫걸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인력 등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와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상생의 틀을 견지하며 균형을 맞춰나가겠습니다. 전북발전과 도민 행복이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집행부 견제·감시는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 ▲소상공·영세 자영업자 경영 위기 극복 지원책 마련
- ▲전북 현안 사업 신속 추진 견인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 ▲국회서 개정토록 타 지역과 연대
- ▲의회 확고한 위상 확립 위해
- ▲인사권독립 등이 필요

▲집행부 견제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실 기구를 신설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현안과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해 조례와 법률 등 의원들의 입법정책지원 강화와 정책연구 내실화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협력도 중요하지만,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계획이신지요?

수레바퀴의 크기는 양쪽이 같아야 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가 관계가 그렇습니다. 양 기관을 동반자적 관계로 만들어 진정한 공생관계를 실현하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 즉,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도민이 있기에 전라북도가 있고, 도민이 있기에 도민의 행복과 전북발전을 위한 도의회와 집행부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무조건 타협하기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기능과 생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북 몫을 지키거나 찾는 일이라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도의원 39명 중 3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소수의 목소리도 외면당할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이지만, 그

렇다고 소수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 의장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의원과 소통했습니다.

소속 정당이 다르거나 소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시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도민의 행복과 전북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료의원으로서 존중하고 대화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다수여서 견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요?

도의회가 도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기능,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합니다. 전북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집행부와 협력하고 지원하는, 상생하는 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나 조직개편, 예산 등 의회와 사전협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때 과감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지만 야당의 역할을 전북도의회가 맡겠습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의회 확고한 위상 확립과 도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후회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여러 난제가 존재합니다. 연간 100여 건이 넘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입법 활동,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을 포함해 11조 원을 출혈 넘어서는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등 복합 민원을 해결하는데 39명의 도의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보좌 역할은 기대치 이하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관련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와 연대해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약속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수많은 기업이 파산 직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량 실업이 우려되고 그 폐해는 사회 양극화 심화와 중산층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시대변화를 빠르게 읽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습니다.

정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주민과의 신뢰입니다. 39명의 의원은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견제와 감시 역할은 물론 전북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집행부와 협력하고 지원하는 상생하는 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효상 기자

최영일 부의장 “협치의정 모델 조성”



제11대 전라북도의회 하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최영일(순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년 지방의회 활동 경험 바탕으로 실재는 성공으로, 성공은 더 큰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먼저 “도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겠다”며, “새로 구성되는 의장단과 협의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불편과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민원처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효율적인 집행부 견제를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진정한 협치의정 모델을 만들고, 의원들의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지역공약 등이 정책화되는 상황도 꾸준히 점검해 의정활동 효율을 높일겠다”고 약속했다.

황영석 부의장

“도민 위해 일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황영석(김제1·더불어민주당) 도의회 신임 부의장은 “도의회 하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재무장하고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특히 의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의 타성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열린 도의회·강한 도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한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 의회사무처 조직을 일하는 전문가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황 부의장은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공직과 지방의회에서 쌓은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동료의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